


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이유  
- 공리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

김 성 한

전주교육대학교





## 주 제 분 류

윤리학, 응용윤리

## 주 제 어

개, 공리주의, 반려견, 식용견

## 요 약 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식용 금지 법안을 놓고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개들을 반려동물로 간주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개식용에 이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와 식용으로 키우는 개를 구분하면서 후자의 경우는 식용동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쟁에서 개식용화에 반대하는 편에 서서 왜 이를 반대해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윤리적인 반대를 위한 잣대로 공리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 식용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공리주의를 기준으로 개 식용화가 도덕적인 잘못임을 보인다. 둘째, 개식용화 찬성 논거가 적절하지 못함을 밝힌다. 이와 같은 시도는 현재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개식용화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접 수 일 : 2018년 10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8일





생명연구 제50집 2018년 11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50, Nov 2018, pp. 53~89  
<https://doi.org/10.17924/solc.2018.50.53>

# 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이유 - 공리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

김성한  
전주교육대학교

## I. 들어가며

과거에는 반려동물이 그저 집에서 키우는 동물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키워졌으며, 설령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그 한계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동물에 대한 태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오늘날 이러한 동물들의 상당수는 집안에서, 인간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 그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가족 성원에 가까운, 혹은 가족 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이들을 부르는 단어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의해 연구되었음.



바뀐 데에서, 그리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 등에서 감지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사육마릿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 2027년에는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4년 2조3322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sup>1)</sup>

그런데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동물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획일적이진 않다. 반려동물도 그저 동물일 따름이며,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견에서부터, 반려동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가축 또한 반려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채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그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특히 개를 식용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당위의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서 국내에서 대개 반려동물로 분류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용으로도 분류되는 개를 먹는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순전히 인간 중심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집에서 함께 사는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식용으로서의 개는 공통적인 측면 못지않게 차이점이 없지 않다. 개 식용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개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 식용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차이가 개 식용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1) <뉴스메이커>, 「대한민국에 선진반려문화를 정착시키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9435/>, 2018.05.08.  
 (검색일: 2018.10.08.)



반박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찬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궁극적으로 개 식용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 II. 반려동물과 애완동물

현재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애완동물로 불리던 동물들을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전환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물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애완동물이라 할 때 애완(愛玩)의 사전적 정의는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이다. 언뜻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정의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를 곱씹어 보면 소위 애완동물로 분류되는 동물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 이러한 단어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의 쓰임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역할은 오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완구(玩具)에서의 ‘완’이 ‘가지고 논다’는 의미라면, 동일한 한자어 ‘완’을 사용하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 또한 인간이 즐겁게 가지고 논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적절치 못한 시각을 교정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 애완동물로 불리던 동물을 반려(伴侶)동물로 부르는 추세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반려란 ‘짝이 되는 친구’를 뜻하는 말로,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친구가 되어 주는 동물을 뜻한다. 이와 같이



정의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에 대해 훨씬 많은 배려를 하려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인간이 동물을 귀여워하거나 즐기는 경우에도 그들이 나쁘지 않은 처우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처우가 친구가 되는 경우가 의미하는 것만큼의 관계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는 친구를 함께 즐거움을 나눌 대상이라 생각하지 귀여워하거나 즐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동물들이 명실상부한 반려자가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과거에 비해 이러한 동물을 보는 시각이 진일보(적어도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애완동물로 불리던 오늘날의 반려동물은 대체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인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로 분류되는 동물은 곤충이나 물고기로부터 고양이와 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의 선호도 다양해져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멧돼지나 뱀과 함께 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반려동물이라 했을 때 떠오르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 특히 개다. 이처럼 개가 반려동물을 대표하는 동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유주에 대한 개의 충성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 때문일 것이다. 사실 반려동물이라 할 때, ‘반려’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사회성, 충성심, 지능 등일 수 있다. 개는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동물이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고양이 또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사회성이나 충성심은 개에 비해 떨어지



는 편이다.<sup>2)</sup>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개와 고양이 중 반려 동물로 선택되는 동물은 개가 훨씬 많다.<sup>3)</sup>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성, 충성심, 지능 등이 개와 고양이보다 못하다. 예컨대 물고기나 곤충의 경우는 주인을 따르는지가 분명치 않으며, 사회성, 충성심, 지능 등도 확고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동물의 반려성은 현저하게 낮을 것이다.

### Ⅲ.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

특정 집단의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부르건, 애완동물이라 부르건 이러한 동물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 왔다. 특히 개가 인류와 함께 한 역사는 무려 10만 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그런데 이와 같은 동물들에 대해 인간은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반려동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둘째, 굳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배려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배려의 대상이다. 셋째, 반려동물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생각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와 마릿수는 2017년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개 632만 마리를, 그리고 고양이 243만 마리 등 총 874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뉴스메이커>, 「대한민국에 선진반려문화를 정착시키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9435>, 2018.05.08. (검색일: 2018.10.08.)

4) 남유철, 『개를 위한 변명』, 유미디어, 2005, 36쪽.



이들 중에서 첫 번째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다. 두 번째 입장은 동물 자체가 배려의 대상이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에 속하는 반려동물들 또한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의 입장에 따르면 반려동물들은 공감이나 감정이입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 마치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배려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듯이, 동물들의 경우도 나와 각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자체가 배려의 우선성을 정당화해준다는 것이다.

## 1.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관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며, 반려동물 또한 마찬가지다. 이처럼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이 반려동물을 탄생시켰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야생동물이었던 반려동물의 조상을 일정한 개량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반려동물에 이르게 한 것이 인간이며, 특히 이에 대해서는 육종가(育種家)들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탄생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이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셰퍼드(Paul Shepard)는 “이들은 사실상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명을 갖춘 기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다음으로 신이 인간

5) Paul Shepard, “The Pet World”,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을 위해 동물을 창조했다는 관점이다. 이는 신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을 창조해 주었다는 입장이다.<sup>6)</sup>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주조된 존재이며, 영혼이 있는 존재임에 반해, 동물들은 이러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창조되었다. 즉 “인간 종이 피조물의 정점이며, 신이 그들에게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먹도록 허락했다”<sup>7)</sup>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반려동물 또한 인간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고전적인 철학자로는 칸트를 들 수 있다. 그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만이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처럼 의무의 대상을 한정할 경우, 이를 벗어나 있는 동물은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동물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경우 인간의 인격성을 고양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잔혹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잔혹해질 수 있다.”<sup>8)</sup> 이처럼 칸트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간접적인 데에 그치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임의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중에서 먼저 인간이 반려동물을 창조했음으로 인간이

---

Routledge, 2003, p. 512.

6) 피터 싱어, 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320쪽.

7) 피터 싱어, 2012, 322쪽.

8) Immanuel Kant, trans. L. Infield, *Lectures on Ethics*,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p. 240.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창조했다’는 말은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란 적어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아니며, 창조의 대상이 된 동물 또한 현재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다. 조상으로서의 반려동물을 창조한 사람들은 우리의 먼 조상, 또는 육종가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특정 시간에 살고 있던 특정 사람들이 아니다. 설령 그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에 관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통해 창조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내’가 직접 그들을 창조해 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동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 부모가 자식을 탄생시켰어도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물론 부모-자식 관계와 인간-반려동물의 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후자의 경우에서 인간이 반려동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증의 책임은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에게 있다.

한편 인간을 위해 신이 동물을 창조했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강력한 논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서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지배권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지배하에 있는 대상들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대상들의 복리를 도모해야 할 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책무(stewardship)’” 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



다.<sup>9)</sup> 그런데 해석 방법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 신이 인간을 위해 동물을 창조했다는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칸트가 동물에 대한 의무가 간접적인 데에 그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동물이 이성능력이나 도덕적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예컨대 이성능력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성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힘든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 노인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소위 ‘경계 논증(the argument from marginal cases)’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적하면서 동물을 차별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인간 집단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말이다.

오늘날 반려동물을 포함해 동물에게 ‘전혀’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으로 간주된다. 그루언(Lori Gruen)이 언급하고 있듯이 “어떤 식으로 구획이 설정되건, 동물들이 도덕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 그들을 처우할 수 있는 옹호할 만한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0)</sup>

9) 피터 싱어, 2012, 320쪽.

10) 로리 그루언, 김성한·김성호·소병철·이병철 옮김, 「동물」, 『응용윤리』, 철학과현실사, 2005, 194쪽.



## 2. 반려동물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

반려동물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그들에게 다른 동물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할 도덕적인 정당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처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리주의와 권리론의 관점은 이와 같은 입장을 대표하는데, 전자의 대표자로는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제임스 레이첼즈(James Rachels)를, 후자의 대표자로는 톰 레건(Tom Regan)을 들 수 있다.<sup>11)</sup>

먼저 동물의 도덕적 지위 문제를 철학적 논의의 반열에 올려놓은 싱어는 선호(preference)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이익동등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익은 누구의 것이건 그와 상관없이 동등한 이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이 인간의 것이건, 동물의 것이건 그와 무관하게 동등한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은 이익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sentient being)라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싱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존재는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반려동물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로, 배려의 대상이

11) 이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국내에 적지 않게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에서는 이들  
에 대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데에 그치도록 하겠다.

12) 피터 싱어, 황경식·김성동 옮김, 『실천윤리학』, 철학과현실사, 1997, 43쪽.



되어야 한다.

싱어와 달리 레건은 동물들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고, 이는 결코 양도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들이 본래적인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이는 결코 타인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 레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반려동물은 본래적 가치를 갖는 종의 동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와의 관계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sup>13)</sup> 그런데 레건이 말하는 본래적인 가치는 그 존재가 얼마만큼 삶의 주체(subject of life)로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 애완동물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게는 여타의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대체로 인간과 반려동물의 남다른 관계가 강조되며, 이러한 관계를 외면한다는 것은 도덕 판단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정서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sup>14)</sup>

밀리건(Tony Milligan)에 따르면 반려동물들이 특별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그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다. ②우

13)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3, pp. 20-21.

14) James Garbarino, "Protecting Children and Animals from Abuse: A Trans-Species Concept of Caring",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3, p. 521.



리와 삶을 공유하는 존재다. ③그들은 지능이 높으며, 사회적이다. ④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 ⑤동물이 죽었을 때의 슬픔은 친한 사람의 죽음에 못지않다.<sup>15)</sup> 그는 각각의 논변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각각의 논변에는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 속한다고 할 때의 자격을 상세히 따져볼 경우 반려동물들이 배제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그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의식 등을 공유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했을 때 반려동물들이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도, 이 사랑이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때문에 반려동물과 자식 중에서 한쪽을 구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반려동물을 구하는 사람은 공평무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보다는 ‘도덕적인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sup>16)</sup>

이와 같은 차이가 분명 있음에도, 우리가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설령 이들에게 느껴지는 정서가 친한 사람에 대해 느껴지는 바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크게 슬픔을 느끼며, 그들의 죽음이 다른 유사한 동물로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예화로는 어린왕자와 장미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어린왕자는 수많은 장미를 보고 나의 장미가 다른 장미와 외향

15) Tony Milligan, *Beyond Animal Rights*, London: Continuum, 2010, 6장을 볼 것.

16) Tony Milligan, 2010, p. 119.



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고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슬픔을 극복하는데, 그 이유는 설령 외적 모습이 비슷해도 내 장미가 다른 장미와 달리 소중한 이유가 그 장미를 길들였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sup>17)</sup> 반려동물과 함께 한 시간들, 그 동물이 보여준 주인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우러져 느끼게 되는 애정으로 인해 그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건데, 우리는 반려동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해 된다는 입장의 논의들이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가치를 인정받건,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건 적어도 그들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만큼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배려의 대상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에 부합되는 대우를 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학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더 이상 애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유기해서도 안 된다. 일단 그들을 반려동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반려’라는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곧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 또한 반려 관계 속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동물들이 얻게 되는 혜택이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sup>18)</sup>

17) 썸 뽀뽀리, 이정림 옮김, 『어린왕자(외)』, 범우사, 1991, 93쪽.

18) James Serpell, Raymond Coppinger and Aubrey Fine, “The Welfare of Assistance and Therapy Animals: An Ethical Comment”,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3, p. 529.



실제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한 별다른 의도 없이 동물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다. 반려 관계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동물들이 이처럼 불편해질 수 있음을 의식하면서 혜택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식용견, 어떤 처우가 적당한가?

사실 반려동물들에 대한 처우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편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고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향도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반려동물로 집에서 함께 사는 동물과 같은 종에 속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동물들에 대한 처우다. 소위 길고양이와 식용견은 그 예다. 이와 같은 개와 고양이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식용견은 이와 관련된 집단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이들이 확실하게 반려동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특별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선 잠정적인 정의에 입각해 그들이 반려동물인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 1. 반려동물과 가축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로 본 식용견의 지위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할 때 떠올리는 모습은 집에서, 인간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실제로 우리가 반려동물을 정의할 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 다시 말해, ①인간 가족과 함께 산다. ②인간 가족의 사랑을 받는다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소위 길고양이와 식용견은 반려동물이라 부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집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물도 아니다.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길에서 살아가며, 스스로 먹이를 취한다. 사실상 그들은 거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도시나 사람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준(準)야생동물이다.

식용견 또한 반려동물이라는 정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잠정적인 정의를 통해 보았을 때, 이들은 ①과 ②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식용견들은 ①과 ②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들은 열악한 수용 시설에서 사육되며, 특정 개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언뜻 보기에 그들은 식용의 목적으로 사육되어 식용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축의 정의에 더 부합되는 듯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개식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식용견들을 가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가축에 대한 정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의(定義)는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가지면서 다소 막연하게 어떤 대상의 특성이나 성질을 나타낼 따름이다. 이러한 생각이 적절하다면 위에서 살펴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식용견을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혹은 가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용견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가 반려동물로 간주되는 동물들과 동종(同種)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가축 쪽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축과 반려동물의 특성을 공유하는 식용견에 대한 적절한 처우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식용견을 반려동물로 간주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예외적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자 한다면 밀리건이 언급했던 다섯 가지 기준<sup>19)</sup>을 통해 식용견의 지위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식용견은 ①, ②, ④, ⑤의 기준에 부합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물론 공동체에 속한다는 주장이나 삶을 공유한다는 주장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가족으로써 집에서 함께 사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와 삶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식용견의 경우는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려동물과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친분을 포함한 주관적인 정서 반응에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19) 앞에서 소개한 밀리건의 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①우리 공동체에 속하고, ②우리와 삶을 공유하는 존재이며, ③지능이 높으며, 사회적일 뿐 아니라, ④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⑤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의 슬픔이 친한 사람의 죽음에 못지않다는 이유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식용견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처럼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의 죽음에 대해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개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가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등의 이유로 개식용에 반대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친구인 개는 엄밀히 말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특정한 개이지, 개 일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식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설령 자신들이 함께 사는 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애정의 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식용견들은 여전히 애정을 느끼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친근감이나 애정을 느끼는 것은 ‘모든’ 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한되며, 개에 대해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 특히 보신탕을 즐겨 먹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이러한 입장을 외면하고 자신들과 유사하게 식용견에게 애정을 느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자칫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개식용에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과 함께 사는 개는 반려동물일 수 있어도, 자신이 음식으로 먹고자 하는 개는 반려동물도 친구도 아닌, 그저 먹을거리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의 식용견에 대해 느끼는 정서에 대한 교정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개를 먹고 안 먹고는 결국 개인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식용견에 대해 애정을 느끼는 사람은 개를 먹지 않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를 먹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것이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식용 금지를 제도화하는 데에까지 이르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개를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할 경우 식용견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각에 이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동물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애정 등 정서 반응에 호소하려 할 경우 식용견에 대한 보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식용견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애완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아닌 ‘모든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식용견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길을 돌려 봐야 할 것이다.

## 2. 동물 보호 차원에서의 식용견에 대한 처우 : 공리주의적 접근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장이다. 그런데 어떤 감옥에 잘못이 없음에도 심하게 착취를 당하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막노동을 하고 있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날 정부가 이들을 해방시킬지 아니면 사회를 위해 감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내게 의견을 물었다. 이 때 나의 합리적인 결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옥 속의 사람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내 아이에 대해서 만큼의 관심을 촉발하지 않는다. 감옥 속의 사람과 자식 중에서 더 소중한 쪽을 선택하라 하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자식을 선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정서 반응의 차이와 상관없이 감옥 속의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그들이 나와 동일 종(種)의 인간이고, 이들에게 나의 감정이 이입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이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관적인 반응 자체가 다를 경우 수감인들에 대한 판단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고기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개고기 금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개고기 문제에 각기 다른 정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정서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결판이 나지 않는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감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은 우리와 수감자의 관계나 정서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권리, 가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중 고통을 거론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이유를, 권리나 가치를 거론하는 것은 권리론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공리주의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 식용견 문제를 검토해 보자.

공리주의적인 접근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무엇보다도 쾌락



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마땅히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그와 같은 존재임은 그들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통해, 신경생리학적인 반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식용견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이 또한 그들을 배려해야 할 이유가 된다. 현재 그들이 도축될 때까지 살아가는 환경은 공장식 농장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그들이 도축되는 과정 또한 결코 공장식 농장에 비해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심지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경우까지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들은 공장식 농장 동물보다 훨씬 참혹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들의 고통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들은 마땅히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이왕의 가축 사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를 먹으면서까지 고통을 추가적으로 야기할 이유가 없다.<sup>20)</sup> 이미 이 세상에는 소, 돼지, 닭으로 대표되는 가축에게 넘칠 정도로 고통이 야기되고 있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 받을 종의 수를 추가해서 이 세상에 고통의 양을 증대시킬 이유는 없다.

넷째, 이익동등고려원리를 적용해 보면 개식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서 개고기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단지 개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고기 허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 모두의 이익이 포

20) 김성한,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한 소론」,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46권, 2009, 67-8쪽.



함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익을 고려할 때 이해 당사자가 최대한 공평무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무런 숙고 없는 ‘좋다’, ‘싫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슬기로운 사람, 즉 이상적 관찰자(ideal observer)로서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단을 고려해보았을 때, 필자는 개를 제외한 인간 이해 당사자들이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익이라는 것의 양화(量化)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야기하자면, 목숨을 잃게 되는 개와 개고기를 먹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역지사지의 방법, 혹은 롤스의 무지의 베일 등을 활용해서 사고 실험을 해보면 비교적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sup>21)</sup> 실제로 개고기를 먹게 될 경우 개는 목숨을 잃게 되며, 목숨을 잃기에 앞서 엄청난 고통 속에 시달리다 죽게 됨에 반해, 사람은 그저 개고기를 먹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식도락적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만약 개고기가 다른 고기와는 현저하게 다른 어떤 특징이 있고, 특히 그러한 고기를 먹지 못할 경우 인간이 목숨을 잃게 되는 등 치명적인 이익상의 문제가 초래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개고기의 맛은 다른 고기의 맛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개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심각한 이익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개를 먹는 사람과 개의 이익간의 이상적 관찰자의 판단을 차치하고라도, 개식용에 대한 최근의 통계 조사에

21) 마크 롤랜즈, 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113-15쪽.



따르면 개식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46%로, 찬성하는 사람의 18.5%를 압도했다. 이는 2015년 갤럽 조사 때보다 더욱 간격이 벌어진 것인데,<sup>22)</sup> 만약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상식적으로 개식용과 관련한 인간들의 이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대체로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인간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식용견들이 반려동물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종에 속하고, 동일한 선호를 가지며, 이에 따라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식용견은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부르는 개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굳이 다른 것을 지적한다면 식용견들이 견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뿐,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덩달아 아파하는 견주와 같은 사람이 없을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쾌고감수능력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반려견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개가 반려동물이건 식용견이건 이와 무관하게 그 개를 배려해야 한다. 심지어 이러한 개들은 현재 더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려견보다 더욱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는 기부금으로 부자와 평범한 사람, 그리고 극빈자 중에서 한 명을 돕고자 할 때,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공리주의자는 극빈자에게 기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쾌고 계산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를 보호하는 것이 정서 반응의 차원이 아니라 윤

22) <한겨레>, 「개고기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많아… ‘보신탕 시대’ 저무나?」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45034.html#csidx8f91352d8d47631aac601a333f5054d](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45034.html#csidx8f91352d8d47631aac601a333f5054d), 2018.05.17. (검색일: 2018.09.28.)



리적(공리주의적) 사유의 귀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개이건 보호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대상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보호하자고 할 경우, A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고, 호응하지 않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A라는 대상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호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이라면, 다시 말해 A에 대한 관심이 일종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한다면, 설령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A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호의 문제와 의무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 3. 공리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론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개고기 문제에서 굳이 공리주의를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채고감수능력을 갖춘 동물은 단지 개만이 아니고, 우리가 즐겨 먹는 소, 돼지, 닭 등도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만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가? 셋째, 만약 시설이 낙후되었다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매우 쾌적한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다가 고통 없이 도축을 해서 먹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넷째, 식용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 받지 않는가?



### 1) 왜 하필 공리주의인가?

먼저 공리주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리주의가 대표적인 윤리 이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공리주의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점이 분명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리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론이 상대적으로 다른 윤리 이론에 비해 설득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100점 만점에 20점, 40점, 50점, 70점이라는 평가를 받은 후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후보는 70점을 받은 후보일 것이다.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이유는 그가 전지전능한 완벽한 후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은 것은 그리 훌륭한 점수는 아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선택지에 만점짜리 후보가 없고, 70점이 최고라면 우리는 70점을 받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그런데 윤리 이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여러 윤리 이론 중에서 공리주의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꽤 많은 선택인 것이다.<sup>23)</sup>

23) 찰스 해리스, 김학택·박우현 옮김, 『도덕 이론을 현실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서광사, 1994; Lewis Vaughn, *Doing Ethics: Moral Reasoning and Contemporary Issues*, 4th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를 볼 것.



## 2) 왜 개만 먹어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로 왜 하필이면 개만 먹어서는 안 되느냐는 질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은 공평성을 고려한 질문으로,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만약 개를 먹어서 안 된다면 우리가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 또한 먹어선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을 먹는다. 따라서 우리는 개를 먹어도 된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는 개나 소나 돼지의 차이 등을 공평무사하게 대할 때의 논리적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sup>24)</sup> 그런데 이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를 바 없음에도 오직 개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어떤 논리적 뒷받침이 필요할까? 이와 같은 뒷받침 없이 개와 돼지를 달리 쳐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칫 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 간에 실제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개만 남다른 배려를 해야 할 이유는 분명치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과 개의 특별한 관계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구체적인 인간과 구체적인 개의 관계이지, 특정한 개가 특정 동물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인간과 친숙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반려동물로 간주하는 개는 개들 중 일부이지 집단으로서의 개가 자동적으로 반려동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식용 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용이함의 문제다. 다시 말해 소와 돼지

24) 이 문제에서 특히 생각해 봐야 하는 동물은 돼지다. 돼지는 매우 영리한 동물로, 지능으로만 따지면 개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도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 개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우리가 개와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소와 돼지 등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개고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계속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조장하는 TV 프로그램 등이 방영됨으로써 반대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다. 많은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뿐만 아니라 다른 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다. 물론 자신과 함께 사는 개와 그렇지 않은 개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라 하면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선택한다고 해서 자신과 함께 살지 않은 개를 전혀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간 세계를 고려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모르는 사람은 내 자식에 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적절하다면 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개고기 금지에 대한 요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소와 돼지 등의 가축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현실을 감안하자면 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매우 구하기 힘든 A집단과 상대적으로 구하기 용이한 B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면 두 집단을 모두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들 중에서 B집단부터 구하는 것이 잘못된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적절한 선택이다. 여기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두 집단을 모두 구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개를 다른 동물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육 환경을 개선한다면 개를 먹어도 되지 않는가?

세 번째로 개 사육 시설이 열악하다면 이를 개선하여 개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하던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국내의 식용견 사육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그 이유는 식용견의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마땅한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고기를 합법화하고 식용견을 가축으로 인정할 경우 거기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만약 이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된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는 소, 돼지, 닭 등 일반 가축에게도 적용되는 논리다.

만약 오직 고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와 같은 논리는 일면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개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어느 순간 아무런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개에게는 거의 고통이 야기되지 않았고, 심지어 행복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통 야기 문제와 별개로 생명 선택의 문제는 공리주의자들에게 어느 정도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 문제를 고찰해 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자. 첫째, 만약 어떤 개인을 아무런 고통 없이, 나아가 행복하게 살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사람을 어느 순간 아무런 고통 없이 살해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둘째,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목숨 중에서 한쪽을 구하라고 할 경우 어느 쪽을



구해야 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고통에 초점을 맞출 경우 우리는 인간 살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그 어떤 사람도 동의하기 힘든 결론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서도 고통만을 의식할 경우 둘 중 어떤 쪽을 구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아무런 고통이 야기되지 않고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만큼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리주의자들은 선호(preference)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선호는 종에 따라 선호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 차원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도 선호가 얼마 되지 않은 존재는 파리, 지렁이 등의 하등동물일 것이다. 이에 반해 가장 선호가 많은 존재는 인간일 것이다. 그 이유는 사유 능력의 발달에 따라 인간은 자의식을 발달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다양한 선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그런데 선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은 설령 아무 고통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죽게 될 경우 그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충족시켜야 할 수많은 선호를 전혀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목숨 중 한쪽을 구하는 경우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과 동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충족시켜야 할 선호의 양은 성인이 동물에 비해 훨씬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과 동물의 목숨 중에서 한쪽을 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선택되는 쪽은 인간이다.

25) 최훈, 『매사에 공평하라, 벤담과 싱어』, 김영사, 2007, 188-9쪽.



그런데 이처럼 선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설령 개가 가축으로 인정받아 비교적 좋은 시설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개는 사회적 동물이면서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이다. 이와 같은 동물은 지능이 높은 만큼 비록 인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호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호는 그들이 살아있어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설령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동물 권리론자인 레건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동물들의 본래적 가치에 차등을 두고 있다.<sup>26)</sup> 레건에 따르면 대체로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가, 그 다음으로는 개 등의 목숨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개가 다른 많은 동물들에 비해 지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개, 소, 닭, 오리 중에서 굳이 한 종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면 개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을 먹는 것도 반대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동물이 제한된다고 했을 때, 개를 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26) 이에 관한 논변으로는 제임스 레이첼즈의 ‘살아있다(being alive)’와 ‘삶을 영위한다(having a life)’의 구분, 피터 싱어가 말하는 인격체(person)로서의 생명을 참조할 것. 피터 싱어, 1997, 115-16쪽; 제임스 레이첼즈, 김성한 옮김,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나남, 2007, 361-62쪽.



것이다.

#### 4) 식용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가?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개고기를 금지할 경우 개의 이익과 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충족이 되지만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개고기를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은 침해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고기가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개, 그리고 개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과 개고기로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어느 쪽이 가해자고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는 분명하다. 피해자는 개인 것이다. 그런데 이익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구를 구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제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구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은 사실상 그 사람의 슬기로운 판단 결과로서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익이 아닌 것이다. 물론 개를 먹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개를 도축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의도가 있건 없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 도축, 개고기 판매 등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



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소 시간이 주어진다면, 혹은 그들이 개를 사육하여 도축하고, 고기를 팔아 얻게 되는 수익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등 그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업을 유도한다면 그들의 생존이 전적으로 위협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레코드를 판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업종을 바꾸어 지금도 여전히 삶을 잘 영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고기 판매를 합법화하려면 이에 앞서 개 사육 시설이 현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개선은 금전을 들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개고기 판매업자들이 이에 들어갈 자금을 시설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한다면 현재 개고기 관련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난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며

지금까지 필자는 개고기를 둘러싼 이런 저런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리주의와 동물 권리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고기를 먹는 것은 식사에 관한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누군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따질 때에는 그러한



문화가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의 여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강간 문화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문화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려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를 그 사람의 권리라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도둑질이 도덕적인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리주의와 동물 권리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포함해 동물을 먹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동물을 먹음으로써 그 동물의 본래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개고기 먹는 것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에게 주는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고기를 먹는 것은 식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도, 문화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sup>27)</sup>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야 할 개고기는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얹혀 있다. 이러한 얹힘을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정리하고 풀어나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개고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7) 김성한, 2009, 50-51쪽.



## 참고문헌

- 남유철, 『개를 위한 변명』, 유미디어, 2005.
- 최 훈, 『매사에 공평하라』, 김영사, 2007.
- 찰스 해리스, 김학택·박우현 옮김, 『도덕 이론을 현실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서광사, 1994.
- 마크 롤랜즈, 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 썸 뎁취빠리, 이정림 옮김, 『어린왕자(외)』, 범우사, 1991.
- 제임스 레이첼즈, 김성한 옮김,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나남, 2007.
- 피터 싱어, 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 피터 싱어, 황경식, 김성동 옮김 『실천윤리학』, 철학과현실사, 1997.
- 김성한,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한 소론」,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46권, 2009.
- 로리 그루언, 김성한·김성호·소병철·이병철 옮김, 「동물」, 『응용윤리』, 철학과현실사, 2005.
- Kant, Immanuel, trans. L. Infield, *Lectures on Ethics*,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 Milligan, Tony, *Beyond Animal Rights*, London: Continuum, 2010,
- Vaughn, Lewis, *Doing Ethics: Moral Reasoning and*



*Contemporary Issues*, 4th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

Garbarino, James, “Protecting Children and Animals from Abuse: A Trans-Species Concept of Caring” ,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3.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3.

Serpell, James, Coppinger, Raymond and Fine, Aubrey, “The Welfare of Assistance and Therapy Animals: An Ethical Comment” ,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3.

Shepard, Paul, “The Pet World” , *The Animal Eth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3.

<뉴스메이커>, 「대한민국에 선진반려문화를 정착시키다」 ,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9435>, 2018.05.08. (검색일: 2018.10.08.)

<한겨레>, 「개고기 ‘반대’ 가 ‘찬성’ 보다 두 배  
 많아… ‘보신탕 시대’ 저무나?」 ,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45034.html#csidx8f91352d8d47631aac601a333f5054d](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45034.html#csidx8f91352d8d47631aac601a333f5054d), 2018.05.17. (검색일: 2018.09.28)



## **Ethical reasons not to use dogs as food**

### **- focused on utilitarian approach -**

Kim, Sungha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cently,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in Korea over dog eating. The fundamental reason for such a dispute is that dog lovers try to treat all dogs as pets, but those who do not, especially those who have interest in eating dogs, are opposed. They argue that the latter should be classified as edible, while separating the pet dog from the dog for food. This article is on the other side of the debate, and is critical of why we should oppose dog eating. To that end, I adopt utilitarianism as a yardstick for ethical objections and use it to point out the problem of dog eating. There are two main points of discussion. First, dog eating is morally wrong based on utilitarianism. Second, the argument for favoring the amendment is not proper. Such an attempt could serve as a small help to settle the ongoing debate over the issue of dog eating.

**Subject:** Ethics, Applied Ethics

**Key Words:** Dog, Dog for Food, Pet Dog, Utilitarianism